

완도군, 국내 최초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센터 구축

바이오헬스케어 실증사업 공모 선정 조선대 해양생물연구센터에 연구소·스타트업 기업 등 공간 제공

완도군이 국내 최초로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유효성 소재 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연구 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의 사업화를 위해 식약처 등 인준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유효성 및 표준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기반 실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160억원(국비 100억, 지방비 50억, 연구기관 10억)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실증센터를 완도군 신지면에 위치한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에 구축한다.

해조류는 미역, 다시마, 톳, 청각, 감태 등을 일컬으며, 이들이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유효성 실증작업이다.

군은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를 주축으로 10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유효성 소재 실증 장비 구축과 함께 해조류 유래 바이오헬스케어 소재 개발 및 사업화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소재의 유효성 실증이 선행돼야 하지만 유효성 실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관련 기업에서는 원료의 단순 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실증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역 내 다양한 바이오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은 "해조류를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료 표준화를 통한 소재의 규격 설정, 기능성 및 안전성 실증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기업들에 필요한 해조류 유효성 평가와 소재 개발 플랫폼



해조류 바이오 유효성 실증센터가 들어설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완도군 제공>

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또 오는 2022년 신지면 해양바이오연구단지 해양바이오 공동협력연구소를 건립해 기업 연구소 10곳과 스타트업 30개 기업, 공동실험실을 갖춘 연구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해양바이오 기업에 필수적인 연구기반 시설을 갖추게 됐다"며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 대표 산업으로 육성, 해조류의 고부가가치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무안군, 영산강 수해쓰레기 7600여톤 처리 완료



무안군의 신속한 대처로 수해 전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몽탄면 이산리 일대 영산강변.

무안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수해쓰레기 7600여t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수해로 떠내려온 다량의 쓰레기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무안군의 신속한 대처로 영산강은 큰 피해없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군은 수해 직후 쓰레기로 인한 악취를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비를 긴급 투입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했으며, 환경부에 국고지원을 건의해 수해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총 사업비 24억원 중 18억원을 국비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쓰레기 처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으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제조작업을 실시하는 등 영산강을 깨끗한 모습으로 원상복구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몽탄면 이산리부터 삼함읍 남악리까지 영산강 일대 15km의 구간은 수해 이전의 상태로 주민들의 품에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노을 치유의 숲길 완공

구수산 일원 등산로 15km 정비 전망대 테크 칠산바다 절경 관람

영광군이 지난 2020년부터 백수해안도로 일대 구수산 지역에 추진해 왔던 칠산노을 치유의 숲길이 공사가 완공됐다.

영광군은 백수해안도로 구수산 일원에 등산로 15km를 정비하는 칠산노을 치유 숲길 조성사업이 완료돼 중·장거리 순환형 치유의 숲길로 개방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칠산노을 치유 숲길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40억원(도비 50%-군비 50%)을 투입해 백수읍 구수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

하는 등 백수해안도로 주변 산림 지역을 트레킹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3개년 사업을 추진했다.

칠산노을 치유 숲길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이곳을 찾은 등산객은 산행 중에 전망대 테크에 설치된 망원경을 통해 서해 칠산바다의 절경을 관람하는 즐거움과 함께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에서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며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영광군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심신이 지쳐있는 군민이 잘 정비된 구수산 등반을 통해 치유하고 힐링했으면 좋겠다"며 "올해는 전망대 터 설치와 신규 등산 노선 정비를 통해 더욱 쾌적한 숲길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목포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 추진

코로나 장기화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차등 감면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6월 1일까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적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소상공인(임차인)과 건물주(임대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212건에 2800여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시는 올해도 6월 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3개월 이상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물의 임대료 인하 비율 만큼 건축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임대료 인하 비율의 50%까지만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 감면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휴업·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피해 지원을 위해 신고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과 세무조사 유예 등을 하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 moon@kwangju.co.kr

영암군, 문해교육 등 2건 평생학습 공모 사업 선정

영암군은 교육부 주관 2021년 평생학습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성인 문해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에 발맞춰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생활능력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 영암군이 제안한 문해교육과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등 2건이 선정됐다.

찾아가는 문해교실을 통해 교통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교육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를 선정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집합형 교육 방식에서 탈피한 사업추진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군은 문해교육 강사를 파견해 학습자 개개인에 적합한 맞춤형 방식으로 200여명의 대상자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이상학씨가 해남군 북평면 농장에서 애플망고를 수확하고 있다.

'열대 과일의 여왕' 애플망고 해남서 본격 수확

온난한 기후·일조량 많아 최적 6농가 1.4ha 면적에서 재배

'열대 과일의 여왕' 애플망고가 해남에서 본격 수확되고 있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2016년부터 아열대 과수인 망고재배 시범사업을 실시, 관내 6농가가 1.4ha 면적에서 재배 중이다.

해남에서 재배하는 망고는 조기 가온 처리를 하는 등 개화 시기를 앞당겨 5월 내 수확을 완료 예정이다.

노랑계 익는 일반 망고와 달리 다 익으면 사과처럼 붉은빛을 띄게 되는 애플망고는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 불릴 정도로 달콤한 맛과 향, 식감이 뛰어나다.

절반쯤 익었을 때 수확해 유통과정에서 후숙이 이뤄지는 수입산 망고보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애플망고 품질이 월등해 국산 망고 가격이 매우 고가에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제주에서만 생산해 왔으나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까지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해남은 온난한 기후와 높은 일조량으로 난병비 등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겨울철 큰 일교차로 인위적 착과가 가능해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애플망고 재배의 적지로 꼽히고 있다.

농가 출하물량 대부분은 백화점, 공판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해남미소와 농협, 직거래를 통해서도 당도 높은 망고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공판장 시세는 1kg당 6만~7만원 내외로 6월 출하 때보다 2배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